



제 9차 대학교육 정책포럼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이기준)는 2001년 12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양대학교 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 9차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 한양대학교 · 교수신문사 · K-TV 후원으로 개최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교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교수업적평가제의 진단과 처방

이날 첫 번째 주제인 “교수업적평가제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대의 임종수 교무처장은 교수업적평가제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고자 했다. 임 처장은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항목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고, 당해 학교 전체 교수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특성화 전략 등이 교수업적평가제도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수들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연구지향교수와 교육지향교수에 합당한 비례 관계

의 평가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이화여대 조용승 교수는 교수업적평가제의 빠른 정착에는 찬성하나, 이를 연봉제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보다 신중히 접근하기를 주장하면서 연구평가 분야에서 해외 전문학술지만을 강조하여 국내학술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전주대학교 최희섭 교수는 대학에서 주당 강의시간 수가 많을수록, 또 당해 과목 수강학생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교수업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응권 과장은 2001년 4월 1일 현재 4년제 대학 중 84.5%가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수업적평가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목적적 가치가 있음에도 수단적 가치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응권 과장은 앞으로 대학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수업적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확립·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교협의 김형근 박사는 교수업적평가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과거 대학 교수에 대한 추상적 평가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교수업적평가의 문제는 필요성의 차원을 넘어 실시에 있어 평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절차의 합리성·적절성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했다.



연봉제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다음으로 "연봉제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대 권오승 교수는 교수연봉제의 도입은 교수들의 처우와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교수 사회의 내부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대학의 연구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도입하려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지침이나 방법 등을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교수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교수 노동시장의 형성과 직무의 시장가치 결정, 교수업적평가제도의 마련, 교수들의 공감대 형성,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봉제 설계 방안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단순히 교수들의 연구 능력의 저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그 원인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한양대 김병채 교무처장은 교수 연봉제를 도입하는 데 여건이나 환경들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우선 도입을 통한 개선을 해야

만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명대 박거용 교수는 연봉제 도입에 있어 교수의 직무 가치가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봉제를 누구와 계약하고 업적급을 누가 주는가 하는 문제를 더욱 검토해 볼 과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안승준 상무도 대학 사회를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수 연봉제의 도입의 추진을 주장하면서, 다만 평가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직의 환경과 전략에 부합되도록 구성원의 성과를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성과 관리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교협 김병주 박사는 교수 연봉제를 도입했을 경우 예견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 내지 구제 제도의 준비를 위한 '교수업적평가/연봉제 중재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설치하는 시안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대학의 총장, 교무·기획 관계 처장 및 실무 담당자와 대학에서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에 관심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에 대한 문제해결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